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1367) 로 알려주세요.

종교



새해엔 평화를 누리십시오

“가난·소외당한 이들 우선 사랑·배려를”

염수정 추기경 신년 메시지



▲ 염수정 추기경
사진=한국천주교주교회의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이 지난 24일 ‘2021년 신년 메시지’를 발표했다.

염 추기경은 신년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간은 가난하고 약한

이들에게 더 많은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새해에는 우리 사회에서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당한 이들을 위해 우선적인 사랑과 배려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염 추기경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의 시간이 하루빨리 끝나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일상의 기쁨을 되찾기를 기도하자.”며 “생명수호의 최일선에서 모든 노력과 희생을 아끼지 않는 의료진과 봉사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자.”고 강조했다.

염 추기경은 이어 내년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임을 언급했다.

염 추기경은 “새해에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하느님과 교회에 대한 사랑과 복음화를 위한 사목적 열정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진정한 복음화란 우리 신앙인 각자가 주님의 말씀대로 충실히 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염 추기경은 새해 첫 일정으로 1월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과 ‘제54차 세계 평화의날’을 맞아 낮 12시 명동대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한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담아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꿈과 희망을 갖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사람마다 바라는 것은 달라도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의 공통점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올 일 년 동안 마음 편하게 사는 것, 맞습니까? 마음이 편해야 다른 모든 것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영과 육의 건강을 또한 누리게 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말 뜻은 다른 말로 하면, ‘올 한 해 동안 평화롭게 사십시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결코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가 뭐니까? 다툼이 없다고 해서 평화는 아닙니다. 부부가 일 년 내내 큰소리 한번 내지 않고 싸우지 않는다고 해서 아내의 마음 안에 평화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무관심의 상태로까지 가면 그것은 다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위험합니다.

영적인 죽음의 상태입니다. 아웅다웅 싸울 때는 그래도 개선될 희망이라도 있지만 아예 내 마음속에 영적으로 X를 그어 놓으면 싸움도 안 일어납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산다고 해서, 기가 막힌 경치 한가운데 산다고 해서 평화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낙원은 존재치 않습니다. 하느님 앞에 갈 때에만 비로소 낙원입니다.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상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



갈 때 주시는 그것이 바로 참 평화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잘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부와 명예를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평화는 아닐 겁니다.

못난 사람은 평생 못난 것만 붙들고 징징거리면서 고달프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의 상처나 어두움을 보질 않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내려온 평화를 움켜쥐고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기쁨의 사람으로 변할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평화 가운데에 살려고 할 때마다 평화를 깨려고 우리를 붙들고 늘어질 것은 바로 미움입니다. 분명히 내가 원치 않아도 누군가를 미워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쉽습니다.

올 일 년도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미움이라고 하는 놈의 종이 돼서 나도 모르게 올 일 년 동안 쓰레기 같은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에 끌려 다니는 삶, 이것은 종의 삶입니다.

우리들은 자유인입니다. 위대하신 하느님의 아들, 딸이요 그분의 상속을 보장받고 있는 자유인입니다. 미

움의 종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나를 괴롭혔던 바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내가 비로소 자유인이 되고 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늘 위협하는 첫 번째 단추는 바로 미움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미움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교만과 허영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상처를 주는 못된 내 입술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세상패락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평화는 신앙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이 될 때 주시는 선물임을 잊지 말고 올 한 해 동안 내 평화를 깨는 그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말고 신앙의 승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도 우리들에게 많은 유혹이 오고 고통의 십자가가 올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청하십시오. 성모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비록 힘들고 힘든 하루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지라도 우리는 기쁨 가운데서 평화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김웅렬 신부-

좋은신문 알찬신문 ‘타운뉴스’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개인의 작은 권리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기사와 한인들의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싣고 격조높은 기사와 광고만을 게재하는 ‘타운뉴스’와 함께 신문을 만들어 나갈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광고영업직 0명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E-mail: info@townnewsusa.com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

